

2. 시장안정 관점에서 대단지 분양아파트 공급도 중요하나, 인구·가구 변화, 주거복지 측면에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도 필요합니다.

- 서울의 경우 대규모 택지 확보가 곤란한 여건 속에서 1~2인 가구* 및 주거비 부담에 제약이 있는 청년, 서민 주거불안에 대응하기 위해,

* 연도별 1인 가구 비중(서울): ('10) 24.4 ('15) 29.5 ('18) 32.0 ('19) 33.4 ('20) 34.9

- 대규모 분양 아파트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분양·임대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더욱이, 정부는 수요자를 위해 해당 주택들이 어디에, 어떻게 공급되는지와 관련된 정보를 소상히 제공할 필요도 있습니다.
- 이러한 점에서, 그간 아파트 준공실적('05~) 및 입주예정 아파트 실적('09~)을 동일한 기준으로 발표해왔음에도 불구하고,
 - 정부가 임대, 소형 주택을 추가하여 마치 '공급물량을 부풀리는 것처럼 인식'될 수 있는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.
- 도심 내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하며, 이에 따라, 5.6, 8.4 대책, 3080+ 대책 등 다양한 도심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.
 - 범 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속적·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이종곤 사무관(☎ 044-201-33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